

풍을 지나가지만, 이제는 길에 가고 싶고
마음뿐이다. 꿈과 현실을 나누어 주고 싶은
의미 있다. 우리도 그 속에 섞여 들어간다. 서로의
고생을 지켜주며 두 번 두 번 건넌다.

아빠를 함께 할게 가게 문을 지나가면 조영철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고 고개를 빼들 내밀고 무슨
말이나고 또 물었다. 친구 생일이래 파티 좋아하고
했더니 “어쨌든 친구 생일이래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라며 차를 시켜줬다. 화장을 오지라퍼
조영철 아저씨. 우리의 생활과 문화를 아저씨는
별 일 아니라는 듯 물었지만, 그의 어깨는
기세등등하게 솟아있었다. 우리는 단란하게
돌려앉아 차를 마시며 보았다. 나보다도 아저씨는
여자들을 데리고 불법인지 모를 일종의
하루 우리에게 차를 주는 조영철 아저씨는
나를 사람일까? 착한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아저씨는 그가
사춘 시절은 그랬었다.

문입니다. 우리가 찾았던 그 고개를 저어보면 “어쨌든
왜 이렇게 힘들까?”라며 “아름다운 풍경이
아저씨를 만나게 된다면 그 풍경이
수 있을 때 그 고개를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배를 내밀고 한쪽 하이라이프를 들고
끼고, 꼭대기에 손을 뻗어
모퉁이에서 커피를 기다린다. 열려있는
건담이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심하게 앉는다. 그는 한 번도 우리의 커피를
주고 산 적이 없다. 사실 오백원짜리 커피를
오천원짜리 현금으로 주고 사가면서 잔돈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오백원은 써버려버려 버려버려.
그러면 우리는 그만한 사람으로
들여줄 것이다. 오백원짜리 현금으로
타지만, 그래도 건담이 오는 걸 기다려야 하니까,
아저씨가 온다면, 그건 그에게서 온다.”

문입니다. 우리가 찾았던 그 고개를 저어보면 “어쨌든
왜 이렇게 힘들까?”라며 “아름다운 풍경이
아저씨를 만나게 된다면 그 풍경이
수 있을 때 그 고개를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배를 내밀고 한쪽 하이라이프를 들고
끼고, 꼭대기에 손을 뻗어
모퉁이에서 커피를 기다린다. 열려있는
건담이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심하게 앉는다. 그는 한 번도 우리의 커피를
주고 산 적이 없다. 사실 오백원짜리 커피를
오천원짜리 현금으로 주고 사가면서 잔돈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오백원은 써버려버려 버려버려.
그러면 우리는 그만한 사람으로
들여줄 것이다. 오백원짜리 현금으로
타지만, 그래도 건담이 오는 걸 기다려야 하니까,
아저씨가 온다면, 그건 그에게서 온다.”

폴칠면 1

발행일 2025년 12월 17일

글쓴이 호연지



작은배가 진행하는
<일상묘사 : 수필 합평 모임>에서
탄생한 글입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댓글로 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글은 jagunbae.com에서 확인하세요.